

「北征錄」發見을契機로 본

國境關係 文獻資料의 國家管理와

그 內容公開의 限界點에 關하여

柳 永 博
서울大學校 文理大教授

1. 白頭山 査界過程발할 《北征錄》

지난해(1673年) 4月 14日字 <京鄉新聞>學術란에는 우리 나라 北方國境研究에 있어 가장 重要한 分野인 白頭山査界過程을 발할 《北征錄》의 發見과 아울러 그와 關聯한 여러 가지 問題點과 研究方法에 대한 記事가 報道된 바 있었다. 즉 朝鮮王朝 肅宗 38年(1972年) 5월에 있었던 朝淸兩國과의 國境査界의 內容중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事實을 具體的으로 알려주는 《北征錄》의 發見은 참으로 커다란 發見이며 그 價値는 可謂 一級史料에 屬하는 것이다. 朝鮮王朝의 外交樣式을 規定한 『通文館志』의 著者인 金指南의 壬辰國境査界日記인 이 《北征錄》에 관해서는 아직 學界에 正式으로 報告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史料를 알고 있는 사람은 極少數에 지나지 않는 터인데 이 文獻에 관하여 取材한 記者가 記事를 整稿하기 前에 筆者를 찾아 와서 물기에 于先, 차분하게 學術的인 姿勢로 「先研究 後發表」가 要望되므로 그러한 記事를 쓰도록 일러 준 바 있었다. 그리고 《北征錄》의 史料的 價値에 대해서 그 大綱을 指摘해 주었다. 즉 ① 朝·淸兩國의 國境査界에 直接 始終一貫하여 參與한 首譯官(金指南)이 쓴 當事者記錄이므로 그 價値와 意義는 참으로 큰 것이고 ② 그때 같이 譯官으로 活動한 金指南의 子慶門의 記錄인 《白頭山記》나 壬辰國境査界의 朝鮮側·接伴使 朴權의 《北征日記》보다도 그 質·量의 面에서 五倍以上이 具體的이고 豊富한 內容을 보여 주고 있어서 《實錄》을 爲始한 官邊側 基本文獻이 모두 公式的인 記錄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찾아 낼 수 없었던 當時 國境의 現地에서 展開된 査界活動相을 詳細히 알 수 있고 ③ 査界當時 朝鮮側 住民들의 生생한 證言과 ④ 淸側의 不當한 一方의이고도 高壓的인 姿勢 ⑤ 立碑의 前提가 되는 豆淸江水源이 不分明했음에 對해서 淸側도 認定했을 뿐만 아니라, ⑥ 國境到處에 그

네들은 定界碑를 세우려 하였던 淸側의 속셈이 드러나 있는 등, 이 새로 發見된 《北征錄》의 史料的 價値는 莫重한 것임을 아르게 주었다.

來訪한 記者가 이 《北征錄》의 史料的 價値를 깊이 알고자 하여 筆者에게 물어온 뜻은 아마도 近者에 筆者가 《俄國輿地圖》, 《俄國公信》, 《邊界戶籍》등 계속하여 多數의 北方國境研究에 重要한 文獻을 發見해 놓고 있었던 터이라, 그때문에 이 《北征錄》의 價値와 內容이 前者에 發見된 資料와의 關聯性 如否도 아울러 밝히려는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거나 더구나 筆者가 1971年以來로 《韓·中·소 國境關係 資料目錄》을 發表하고 있는 途中이기 때문에 筆者를 찾아와서 또 다른 文獻을 더 알고 또 찾아내려는 欲心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생각 해야 할 것은 새로 發見한 國境關係 文獻資料를 新聞에 報道하므로써 一般에 널리 알려져 자못 世間에 흥분할만한 흥미 있는 內容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國境關係 文獻資料만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先報道의 길보다는 先研究 後報道의 學問的인 姿勢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왜냐 하면 國境關係의 文獻과 資料라면 이 方面에 從事하는 우리 나라의 專門學者들이 먼저 充分히 研究檢討하고 利用하고 그 原本을 잘 保管한 然後에 國內에 紹介하고 正式으로 學界에 報告된 다음에 國外에 알려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임에도 不拘하고 發見과 同時에 모든 內容이 國外에 알려진다는 것은 어느 意味에서도 마음이 안 내키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近年以來에 우리 나라 學者들이나 外國에서 까지도 韓國學에 前에 볼 수 없었던 깊고 많은 關心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國境(北方)研究 分野에 있어서 본다면 文獻資料의 整理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 未整理狀態의 國境關係 文獻資料들이 國外에

原本내지는 그 複寫本이 흘러나가서 그 文獻資料가 지닌 本來의 內容과는 反對의인 方向으로 利用되고 解釋되고 있는 事例가 없지 않았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一般的으로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을 追求하는 方法에는 公開的으로 遂行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非公開裡에 推進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公開性과 非公開性이 區分됨에도 不拘하고 그 限界를 分辨하지 못하는 것은 國家에 害를 끼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된다. 이 《北征錄》의 發見을 契機로 今後에는 過去와 같이 어떠한 文獻 하나가 새로 드러났다해서 多急하게 新聞에 부러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히 서둘러서 말고 專門學者들이 學問的인 次元에서 精密하게 다루어 나가는 學問道를 確立해야 되겠으므로 筆者가 年來에 생각해 오는 所信을 밝혀 앞으로는 國境關係 文獻資料의 國家管理와 그 內容公開의 限界點에 대해서 拙見을 一言 指摘해 두고자 하는 터이다.

2. 새로 發見된 國境關係文獻資料를 新聞이 잘못 報道한 一例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을 新聞들은 새로운 資料(史料) 發見에 상당한 熱誠을 기울이고 있는 듯 하다. 어느 意味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고 研究하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反面에 學界에서는 新聞의 取材姿勢에 대해서 批判의 소리도 없지 않다. 그 主된 理由로서는 報道의 慎重을 期해야 할 問題가 惹起되기 때문이다. 新聞의 한 屬性인 速報性때문에 그 어떠한 文獻資料가 新聞을 통해서 公開될 경우 그 內容이 매우 엉뚱하게 一般世間에 알려지는 事例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다. 그러면 여기에 그 事例를 하나 指摘해 보기로 하자. 지난 1972年 筆者가 藏書閣에서 發見한 《俄國與地圖》의 發見記事가 報道된 바 있었다. 이 경우,

이 地圖의 正確한 이름은 「俄國與地圖」인데 〈俄羅斯〉를 말하는 〈俄國〉을 〈我國〉이라고 잘못 적은 新聞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나라와 中國에서는 俄羅斯로 表記하며 日本은 露西亞로 적는다. 우리 나라에서 옛부터 俄羅斯라고 적어오는 것을 모르고 日本帝下에서 日人들이 쓰던 대로 우리가 露西亞라고 적는 것은 옳지 못한 表記임을 알아야 하겠다. 또한 發見日字도 各己 다르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어 俄國與地圖의 體裁도 新聞들은 잘못 報道했는데 그 正確한 것은 가로 27.3cm, 세로 35.5cm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北征錄》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알아 보기로 하면 이 경우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서도 報道內容中 〈白頭山 査界과정 帛曆「北征

錄〉〈定界會談때의 수석통역관 金指南이 쓴 것〉〈지금까지의 史料중 가장 精密〉〈水源핑계 國境도처에 定界碑〉〈官邊文獻에 없는 內容… 淸의 속셈목로〉

이러한 다섯개의 〈헤드라인〉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은 〈定界會談〉과 〈……國境도처에 定界碑〉라 적은 두 곳이다. 壬辰國境査界는 朝·淸兩國이 正式으로 國境의 再劃定을 爲한 定界會談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當時兩國이 共同으로 國境을 살피어 본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定界〉라 表記한 것은 過去의 일이나, 現今의 表現이 다같이 잘못된 것으로 적절할 것이 못된다. 그러면 어떠한 表現이 歷史的인 사실에 부합한 것이냐 하면 〈査界過程〉이라고 적어야 옳은 것이다. 다음에는 「水源핑계 國境도처에 定界碑」라는 〈헤드라인〉을 뽑은 것은 明白한 잘못으로서 歷史的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다. 이 〈헤드라인〉 그대로 받아 드린다면은 肅宗 38년에 白頭山 南쪽에 한개의 碑만이 세워졌던 것인데 그 碑 말고도 他到處에 碑가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으로 알기 쉬운 일이 아닌가. 《北征錄》의 內容에 보면 淸側에서 査界當時 碑를 到處에다 많이 세우려 하였던 그네들의 속셈이 看取되는 사실 뿐이지, 實際에는 그렇지 아니했다.

이렇듯이 한마디의 表記를 잘못해도 明白하고 不動한 歷史的인 事實이 뒤집히는 엄청난 結果를 가져오는 過失을 犯하는 實로 아슬아슬한 일을 보게 된다. 다른 일도 아닌 國家領土에 관한 報道가 이렇듯이 잘못된다면 그 責任이야 말로 따지기 어려운 程度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表記의 잘못 하나가 國家利益중에서 莫重한 比重을 차지 하는 領土問題에 미칠때에 만약 爭端이 發生할 경우 때로는 걸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낳아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國境關係 文獻資料의 새로운 發見이 있을 때에 發見者는 무엇보다도 침착한 마음으로 慎重을 다해서 조용히 分析檢討를 먼저 進行하고 關係分野의 여러 學者들의 意見과 評價를 綜合하여 學問精神과 國家利益에 秋毫도 어긋남이 없는 研究가 先行되어야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야심한 功名心과 業積을 앞세우고 실은 마음에서 경솔히 發表하는 일은 學者的인 研究姿勢도 아니고 따라서 國家利益에도 위배되는 일이 된다. 新聞의 경우로 말하더라도 一線取材에 나선 記者가 새로운 國境關係 文獻資料를 찾아 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發表하는데 多急할 일이 결코 아니라 專門學者에게 먼저 보이고 그 研究結果를 기다렸다가 여유있는 姿勢로 報道하여 조금도 아귀울 일이 아니다. 國境關係 文獻資料란은 이러한 速報競爭對相이 決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해 두는 바이다.

3. 우리 나라 文獻資料를 外國에서 惡用한 一例

우리 나라 北方國境은 韓·中·소의 三國間 國境으로 相對國家는 우리 나라의 理念과 體制가 根本的으로 다른 나라와 相對하고 있다. 그리고 國境問題란은 善진 善진 相對를 前提로 하여야 하는 일인데 그 相對가 우리 나라와는 本質的으로 性格이 다르다. 이 點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配慮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즉 우리 나라 北方國境의 相對國은 단순히 領土保存上의 相對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永遠히 容納할 수 없는 共產國家라는 點이고 더 나아가서는 三八度以北의 우리 領土를 支配하는 괴뢰정권이 과연 우리 나라 國境地帶의 領土를 제대로 保存할 수 있을 것인지 不安한 바가 없지 않다는 두가지 點이 一般的인 國境相對國의 경우와 處地가 다른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自由友邦인 自由中國도 國境問題에 있어서만은 냉철한 姿勢가 아닌가 여겨진다. 數年前에 自由中國政府에서 研究費를 받아 韓·中國境關係 文獻資料를 보기 爲해서 우리 나라를 다녀간 바 있는 張存武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者가 돌아가서 自由中國의 아카데미인 中央研究院의 發刊인 『近代史研究所集刊』(第二期)에 發表 收錄한 『清代中韓邊務問題深源』이라는 글을 보면 우리나라 高句麗의 版圖가 鴨綠江以內로 들어와 있는 地圖를 만들어 넣었다. 高句麗가 支配하던 擴大한 領土는 滿州遼河를 넘는 版圖였음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엄연한 歷史的인 사실이였음에도 아랑곳없이 僞作하는 醜惡한 짓을 마음대로 했고 穆極登이 이끄는 壬辰查界의 淸側人員이 모두 몇명이었던지 조차 모르고 잘못 적는 水準以下의 相對할만한 글이 못되었지만 張이란 者의 主張에도 白頭山 查界로 말미암아 도리혀 淸側이 自國의 領土를 喪失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張이란 者가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동안 마음 놓은 우리나라 學者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깊숙이 넣어둔 諸般資料와 文獻도 보여주어서 보았고 친절한 案內도 받으며 各種文獻資料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便宜를 통해서 많은 資料를 수집해 갔다. 그가 出國하여 자기 나라에 돌아간 다음 發表된 글은 結局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허무맹랑한 글을 내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또한 自由中國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에서 1956年 5월에 刊行한 現代國民基本知識叢書 第四輯으로 나온 陳民耿의 著書 『地緣地理學』 二冊중 第1冊 94面に 보면 中國의 萬里長城이 우리 나라 압록강 以內에 까지 築城된 地圖를 收錄한 바 있다. 이밖에도

中華大典編印會 印行(1957年 8月)
石璋如 等著
『中國歷史地理』(三)

홍콩 新世紀出版社(1958年 1月)

黃同仇 編著
『俄國侵華史的透視』(48—49)

이러한 著書가 陳秋耿를 뒤따르는 것들이다. 그런가 하면 自由中國 國防研究院에서 出版한 世界地圖 第1冊중, 『東亞諸國地圖』에는 우리 나라 白頭山을 中國領土 깊숙이 그려 넣었다. 그리고 압록강 河口에 位置한 우리 나라의 섬인 薪島가 中國領土로 表示되어 있다. 이번에는 東쪽으로 가서 豆滿江河口에 位置한 鹿屯島를 보기로 하자. 이섬은 歷史上 우리 나라의 領土였는데 어느 때인가 俄國으로 連接되어 드디어 俄領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1883年 1月 28日 우리나라 高宗은 魚允中으로 하여금 이섬을 살피게 한 바 있다. 魚允中의 復命중에 「此非容易歸正之事也」

이러한 귀절이 있다. 이러한 記錄은 魚允中의 『從政年表』에 收錄되어 있는데 張存武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歸正非易. 此意味該島屬中國.」

이라고 터무니 없는 惡用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번에는 自由中國이 아닌 中共의 경우를 한 가지 指摘해 두고자 한다. 1954年 3월에 北京에 있는 益昌書店에서 刊行한 劉培華란 者가 編한 『中國近代簡史(1838—1918)』 252면과 253면사이에 끼어 있는 『舊民主主義革命時代(1840—1919) 帝國主義割取 中國領土圖』에 依하면 韓半島 全部가 中國領土로 表示되어 있다. 이야말로 백주에 날강도 같은 수작이려니와 論難의 對象도 못되는 형편없는 冊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우리 나라에 外信을 타고 알려지자, 우리 國民들의 분노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中共에서 出刊된 이들도 변변히 알려지지 아니한 형편없는 者의 冊한 권 속에 끼어 있는 地圖한 장에 正面으로 맞설 價值조차 없었기에 韓·中關係를 객觀적으로 明確하게 歷史的으로 記述한 美國人 O.N. Denny의 “China and Korea” 를 그때 마침 『國家再建最高會議報』에서 筆者에게 번역 要請이 있어서 譯載한 바 있었다.

한편으로 韓國과 朝鮮과의 國境形成은 1860年 北京條約以後의 일이지만, 豆滿江 河口에 位置해 있던 鹿屯島問題는 1883年 高宗에 의해서 關心이 表明되고 魚允中이 다녀온 以後로는 아직 未決의 章으로 남은채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相對國의 文獻資料를 鈔錄할 수 없는 터이고 또한 우리 나라가 直接的으로 實效的인 措施를 取할 수 없는 關係上 보다 具體的인 것을 알 수 없으나, 아무튼 鹿屯島는 엄연한 우리 나라 固有領土이므로 그에 관한 우리 나라 文獻을 그리고 모든 資料를 整理하는데 힘써야 할 일이다. 近者에 이르러서 朝鮮에 관한 이야기가 新聞과 잡지에 더러 보

이고 있는데 國境關係文獻資料에 관한 것만을 함부로 드러내 놓고 말하지 말고 꾸준히 學問하는 精神과 姿勢로 研究해야 할 일이거나와 筆者도 發表하던 〈韓·中·쏘國境 資料目錄〉을 中斷한 바도 바로 慎重을 期하여 뜻하지 않는 惡用을 警戒하려는 意圖에서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이비 학자나 단체가 國家利益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직은 韓國學分野에서 未開拓分野라 하여 경솔히 韓·쏘關係, 더욱이 國境關係는 몇點의 資料가 手中에 있다 해서 경박하게 業績이 될까 해서 들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이비학자들은 自省이 있어야 하겠다.

4. 國境關係 文獻資料의 國家管理란 무엇인가

個人藏書에 있는 文獻資料以外的 公共機關에 屬하는 것은 사실상 그 管理가 國家管理下에 있는 것이겠으므로 굳이 國家管理란 表現이 적절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筆者가 말하고자 하는 國家管理라는 것은 文獻資料의 利用을 國家가 完全히 統制하자는 뜻이다. 지금 外國에서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國境關係 文獻資料만은 손쉽게 누구나 보고 利用할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近者에 商人들의 손에 의해서 古文書 全般이 影印되어 장사속으로 文獻이 흔히 길거리에 나오고 있는 傾向은 누구나 否認 못할 것이다. 過去에 學者들이 貴重本圖書를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때에 비한다면 業者들이 影印本을 찍어 내어 손쉽게 그리고 값싼하게 구입해서 研究에 利用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推勢에 따라서 國境關係 文獻資料가 엄격히 그 限界를 區別짓지 못한채, 商品으로서 거리에 나오게 되어서 그것이 國外로 흘러나가 엉뚱하게도 惡用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우려되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防止하자면 國家에서 于先 한 機關을 設置하여 우리 나라 公共機關에 所藏된 一切의 文獻資料중에서 무엇이 國境關係 文獻資料인지를 가려내어 指定하는 作業을 始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作業에 着手할 수 있는 이 方面의 專門學者들을 選任하는 일이다. 이는 學術院에서 主管이 될 수 있는 일이며 國史編纂委員會와 公共圖書館, 기리고 圖協 등이 協同하여 實行하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 方面의 전문적인 學者가 選任되면 그네들은 國境關係 文獻資料를 選定하는 基準를 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國家에서는 먼저 이미 商品화된 文獻資料—影印本—일지라도 國外에 나가는 것을 一斷 中止시키고 國家가 認定하지 않는 個人이나 단체의 文獻資料 열람을 一時 보류케 하며 國境關係 文獻資料가 새로 發見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主管하는 機關에 提出토록 하고 個人的인 公開를 뒤로 미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一斷 國外

流出을 防止하고 公開를 保留케 하여 놓은 다음에는 國境關係文獻資料의 選定基準를 定하는 作業을 開始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官邊側記錄과 個人記錄 등 一切의 文獻資料에서 國境關係記錄이 들어 있는 것이면 그것을 가려내어 指定하고 여기에 指定對象은 選定對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國境關係의 記錄이 들어있는 一切의 文獻資料는,

A. 直接資料

B. 間接資料

로 區分하고 그 다음에 一等에서 五等까지의 史料比重을 判定하여 規定하여서 그 價値를 分明히 하고 그 圈外에 남는 것은 指定對象에서 除外시킨다. 이러한 作業이 完了된 然後에는 文獻의 商品化가 가능한 것과 不可能한 것이 自明해지게 되겠는데 商品化가 가능한 것만이 影印도 될 수 있고 따라서 國外流出도 許可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指定對象으로 選定된 文獻資料는 國家가 統制하게 되는데 이것은 完全히 封鎖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國家가 認定한 學者와 研究者에게는 應當 열람의 機會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國境關係 文獻資料가 사이비 研究者들의 손에서 不當히 解釋되고 惡用되는 일이 防止되며 또한 國外에 흘러나가 逆利用되는 억울한 일도 未然에 막을 수 있을가 한다. 祖上의 무덤에 세웠던 望石을 國外에 팔아먹는 痛嘆할 일만 큰 일이 아니라, 國家利益에 直結되는 國境關係 文獻資料가 서슴없이 學問研究의 이름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그것이 韓國學의 擴大가 決코 아닌 것이다. 도리혀 眞正한 韓國學의 國際的인 認識을 爲해서는 우리가 먼저 充分히 文獻資料를 完全하게 整理하고 研究하여 그 結果를 내 놓는 것이어야 하겠다. 이웃 日本에서는 1973年 4月 2日에 約30名의 學者, 評論家, 作家 등이 모여 「美國押收의 資料返還公開을 要求する會」를 結成한 바 있었다. 그 內容을 잠깐 살펴 보면,

① 押收資料의 所在와 內容을 公的機關에 依해서 包括的으로 調査하는 일

② 이들 資料는 一括, 無條件 返還하게 하는 일

③ 返還資料를 整理하는 일

등 主要事項을 政府에 提出한 바 있었다고 한다. 敗戰後 占領下에 美國에 依해서 押收된 資料는 방대한 量의 것을 日人들은 다시 되돌려 받기 爲한 運動을 展開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敗戰國이면서도 독일의 경우에는 全部 돌려 받았던 것이다. 日本은 敗戰으로 押收當한 資料도 學問研究의 自由와 알 權利의 確保를 爲해서 國民的인 運動을 展開하여 押收된 資料의 返還公開을 現實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國家利益에 直結되는

國境關係 文獻資料를 흐루게 國外로 흘러 나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1973年 여름에 드러난 일이었지만 어느 公共機關에 從事하던 著가 史料를 日本에 密輸出하려 했던 事件이 있었다. 다행히도 事前에 적발되어 貴重한 文獻資料가 國外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今後에는 絶對로 없게 하자면 國境關係 文獻資料만은 國家管理가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5. 內容公開의 限界點

國家가 管理하는 文獻資料는 國家의 엄격한 統制下에 두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지만 永遠히 封鎖하는 것이 아닌 以上에는 그 內容을 公開할 必要에 따라서는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文獻資料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個人所藏의 文獻資料를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個人所藏의 것도 指定하여야 한다. 一般文化財의 경우도 指定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個人所藏 文獻資料도 包括하여 專門學者가 檢討分析하고 資料를 分野別로 分類한 다음에 그 資料의 輕重比較가 끝남으로 그에 따라서 內容公開의 限界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① 國境關係論文이나 著書에 이미 引用된 文獻資料
- ② 國境關係 文獻資料중에서도 原史料가 아닌 것(例

李重煥의 地理書)

③ 外國人의 論文과 著書

이러한 것은 當初부터 指定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國家의 政策目的에 따라서는 간혹 專門學者의 分類와 輕重比較가 定해진 다음 일지라도 內容公開의 限界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學問의 獨自性과 研究의 自由가 우리에게는 充分히 保障되어 있으나 國境關係에 대한 國家意思以上으로 個人意見이 優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例는 안될지 몰라도 저 有名한 「大東輿地圖」를 만든 金正浩의 獄死說은 사실이 아닐 것이지만, 地圖를 그리어 本國의 기밀을 누설할 기미가 있다는 혐의로 囹圄의 몸이 되었다는 口傳은 그사실 如否를 떠나서 國家의 安全保障의 問題에 前近代社會에 있어서도 國家意思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 가를 잘 反映해주는 事例가 아닌가.

叙上에서 筆者는 누누히 指摘하였듯이 이 國境關係 文獻資料만은 國家가 直接 엄중히 管理케 하므로써 國家利益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所信을 말했다. 筆者의 이러한 拙見이 다행히 여러분의 理解를 얻을수 있게 되기를 바라거나 國家管理에 관한 보다 具體的인 內容이 要請되는 경우에는 稿를 서로히 發表하려 한다.

景印資料案內

韓國文化開發社
서울 鍾路區 鍾路 六街 二六七 (德成빌딩 六二六號)
電話 六六一·六一七 構內 五四番

韓國詩雜誌全集 全五卷

菊版/各五〇〇面/價格 帙當 二七,五〇〇원
最初의 詩專門誌 蓋微村이 創刊된 후 新詩의 기틀을 잡기 위해 詩人들의 努力은 컸으나 日帝治下의 制約 때문에 이 資料의 普及이 圓滑치 못하여 所藏된 것이 全無함.
우리나라에서 發行된 詩專門誌 全部를 蒐合하여 原形대로 景印한 이 全集은 新詩活動의 時代의 人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詩文學史의 貴重한 資料임.
文人·國文學徒의 必備의 研究資料·특히 中高校圖書館 必備의 參考圖書임.

韓國雜誌叢書 全八卷

菊版/八〇〇面/價格 帙當 四八,〇〇〇원
一九〇八年十一月一日 最初로 發行된 雜誌「少年」를 비롯해서 四〇年代 初期까지의 文藝誌와 準文藝誌에서 四〇種을 選定하여 그 創刊號만을 年代 順으로 묶어 景印한 資料로서
中高等學校 圖書館을 위한 參考圖書임.
最少의 豫算으로 新文學史를 汗눈에 붙일 수 있는 山學習 參考資料임.

皇城新聞 全一八卷中 七卷까지既刊

四六倍版/各卷 八〇〇面·二〇〇號收錄
一五〇張限定/價格 各卷 一,一〇〇〇원
創刊...一八九八年 九月 五日
終刊...一九一〇年 九月 十四日 總三、四七〇號
全圖書館에 分散된 資料를 蒐合하여 完全한 資料를 活用할 수 있도록 七卷까지 發行하였음.

독립신문 國文版 全六卷

四六倍版/各卷 六〇〇面/價格 帙當 六〇,〇〇〇원
創刊...一八九六年 四月 終刊...一八九九年 十二月
最初의 民間新聞으로서 特別히 皇城新聞이 完刊되던 十五年間 國家記錄의 公 백을 메울수 있는 正史에 代身한 貴重한 史料임.

독립신문 INDEPENDENT 英文版 第三卷 【近刊】

四六倍版/五〇〇面/價格 帙當 三六,〇〇〇원
독립신문 第一卷(一八九六年 四月)十二月에는 英文版을 第四面에 掲載하였으나 第二卷부터는 英文版 四面을 따로 發行하였음. 처음으로 掲載되는 이 資料는 近代史研究에 새로운 資料가 될 것임.